

# 북한 문화어의 한자어와 외래어

전 수 태

(국어연구소 연구원)

## 1. 서 론

분단 40여년 동안에 진행된 언어 이질화의 양상은 한자어와 외래어 부문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북한에서는 말다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한자어와 외래어의 대부분이 고유어로 다듬어지고 있으리라는 추측을 하기 쉽다. 그러나 말다듬기 사업을 벌이는 다른 한편에서 언어를 체제 옹호의 도구로 삼아 얼마나 많은 새로운 한자어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가를 직시하여야 한다.<sup>1)</sup> 이러한 한자어들은 저쪽 체제를 전혀 모르는 남쪽사람들은 한자의 뜻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외래어의 경우는 우리가 영어의 발음에 준해 외래어를 표기하듯 그들은 러시아어의 발음에 따라 대부분의 외래어를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북쪽에 그들이 쓰는 한자어와 외래어의 어휘 목록과 사용 빈도를 집대성한 자료가 있는지는 필자가 알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남한의 국어연구소에서 펴낸 ‘한자·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I’(1985.12), ‘한자·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II’(1987.5),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1986.5), ‘외래어 표기 용례집(일반 용어)’(1988.8)의 4자료집은 이 방면의 연구에 있어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다.

본 연구는 한자어에 대해서는 저쪽의 실상만을 논하는 데 그쳤지만 외래어 표기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자료를 북쪽의 외래어 표기법에 견주어 보

1) 북한은 1949년 9월 이래 표기상으로는 한자를 전면 폐지하고 한글만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은 남한 못지 않다.

임으로써 이질화의 양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그리고 북한 문화어쪽의 자료는 사전이나 단행본 등 모두 1차 자료를 참고함으로써 전거의 정확도를 높였다.

제 2 장에서는 한자어에 대한 것으로서 두음과 이중모음의 문제, 남한어와의 통사·의미적 차이, 북쪽만의 특이 한자어와 변화 과정을 보이게 될 것이며 제 3 장에서는 외래어에 대한 것으로서 북한에서의 외래어에 대한 대응 방식, 정착 양상과 변화 과정, 국명과 수도명의 남북한 표기 대비 등의 순서로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 2. 북한 문화어의 한자어

북한 문화어의 한자어에 대하여는 논자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필자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어원의 단어가 남과 북에서 각각 어떻게 형태, 통사, 의미가 달라져 있는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북한의 한자어가 어떤 양상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동적 양상을 논의해 봄으로써 북한 문화어의 한자어에 대한 일면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에 1차자료로서 '현대조선말사전'(제 2 판, 1981.12)과 기타 단행본이 이용되었음을 밝힌다.

### 2.1. 두음 'ㄴ', 'ㄹ'과 'ㄱ'의 문제

북한 한자어의 형태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어두의 'ㄴ', 'ㄹ'과 'ㄱ'의 표기에 있다. 남한어에 있어서는 '여결, 낙관, 피폐'가 될 것이 북쪽에서는 각각 '너결, 락관, 피페'가 되는데 북한의 맞춤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sup>2)</sup>

제26항 : 한자어는 음절마다 한자의 현대소리에 따라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 국가, 혁명, 천리마, 너자, 뇨소, 락원, 로동, 레의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한자어는 그대로 적는다.

례 :	음음	그름
	나팔	라팔(喇叭)
	나사	라사(螺絲)

2) 조선말규범집 중의 '맞춤법'(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 1966. 7. 30) 참조.

남색      람색(藍色)

노          로(櫓)

제27항 : 한자어에서 모음 <ㄷ>가 들어 있는 음절로는 <계>, <례>, <혜>, <예>만을 인정한다.

례 : 계산    계획    세계    혜택  
 례외    례결    경례    은혜  
 예술

그러나 그 본디소리가 <계>인 한자어는 그대로 적는다.

례 : 울음          그림  
 게시판(揭示板)    게시판  
 게재(掲載)          게재

위의 제26항의 적용으로 ‘ㅇ→ㄴ’, ‘ㄴ→ㄹ’, ‘ㅇ→ㄹ’로 되는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ㅇ→ㄴ>	
여공→녀공	여주인→녀주인
여성→녀성	연대표→년대표
<ㄴ→ㄹ>	
나침→라침	노인→로인
나체→라체	논설→론설
<ㅇ→ㄹ>	
양식→량식	이발→리발
약칭→략칭	이타→리타

또 제27항의 적용으로 ‘ㄷ→ㄷ’이 되는 것은 두음이 ‘표’인 것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sup>3)</sup>

례 : 폐가→페가          폐막→페막  
 폐교→페교          폐물→페물

그러나 ‘ㅇ→ㄴ’, ‘ㄴ→ㄹ’, ‘ㅇ→ㄹ’은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 아니고 북한 문화어의 실제 구어에서는 남한어의 맞춤법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는

3) 남한에서도 1988.1월의 맞춤법이 확정 고시되기 이전에 국어연구소에서 검토 위원회에 넘긴 안에 ‘베, 케, 페, 헤’, 를 ‘배, कै, 페, 헤’로 적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점이 주목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4)</sup>

〈ㄴ→ㅇ〉	〈ㄹ→ㄴ〉
녀성→[여성]	로력→[노력]
녕변→[영변]	래력→[내력]
	로련→[노련]
	〈ㄹ→ㅇ〉
륙백→[육백]	료리→[요리]
례절→[예절]	련락→[연락]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맞춤법 규정과 구어에서의 허용 기준 사이에서 생기는 모순된 양면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알타이 어족에서는 원래 ‘ㄹ’ 두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ㄴ’ 첫소리는 우리말로서는 좀처럼 발음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음 자체가 어색하다. ‘이발’을 ‘리발’; ‘여자’를 ‘녀자’라고 발음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자어에서 온 말을 한자어 그대로 쓰고 읽자는 것일 터인데 이는 우리 입에 익어진 대로 ‘이발’, ‘여자’로 읽고, 읽히는 대로 쓰는 것에 어긋남은 물론이다. 현실음을 무시하고 원음을 찾아 쓰고 거북하게 읽혀지도록 하는 것은 아마도 평안도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자만심에서 나온 것인 듯하다. 그렇다면 ‘천지(天地)’는 ‘턴디’, ‘정주(定州)’는 ‘덩주’라고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조선말화술’과 위 제26항의 ‘나팔, 나사’ 등의 예에서 어두에서 ‘ㄴ, ㄹ’의 인정은 무리한 것임이 자명해진다.

## 2.2. 통사·의미적 차이

여기에서는 북한 문화어의 한자어가 남한의 그것과 통사적 용법이 다른 것의 예와 의미가 다른 것의 예를 보이코자 한다.

### 2.2.1. 통사적 차이

- 탁구전법을 열심히 학습해 나가다.
- 모내기전투가 벌어졌다.
- 수술전투는 성공했다.
- 우리가 영농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4) 리상벽(1975), ‘조선말화술’ 63~6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참조.

- 예술선동(격려)의 목소리가 우렁차다.
- 약초생산기지(재배지)를 건설할때 대한
- 무대지령체계(감독)를 다지자.
- 원료기지(식량공급터전)를 꾸미는데 일떠나서자.
- 혁명가요를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립
- 전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초소(임무)를 맡다.
- 직접 강의에 출연(출강)하였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한자어 중에서 호전적, 선동적 의미를 가진 군사 용어가 그들의 사상 무장과 체제 옹호를 위하여 남한의 통사 구조에는 도저히 쓰일 수 없는 문맥에 끼어들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국어의 통사 질서에 대한 중대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2.2.2. 의미적 차이

앞에서 통사적 차이의 경우를 보았거니와 의미적 차이도 그 원인은 북한의 체제를 반영하려는 데에 있다. 우리가 '의미'라는 것을 좀 넓게 정

〈남북한어의 의미 차이〉 (☆는 고유어)

	남한	북한
동지	서로 뜻이 같은 사람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 대오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싸우는 혁명가
변절자	절개가 변한 사람	혁명적 지조를 저버리고 조국·인민을 배반하여 반혁명이나 반동으로 넘어간 자
승리	겨루어 이김	혁명투쟁·건설사업에서 이기는 것
자질	타고난 성품과 바탕	가지고 있는 정치적·실무적 능력 수준
선동	여러 사람을 부추기어 일을 일으키게 함	혁명적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대중에게 호소하여 그들의 혁명적 기세를 돋구어 주며 당정책 관철에로 직접 불려 일으키는 정치사상사업의 한 형태
세포	생물체를 조성하는 기본적 단위	당원들을 교양하고 당원들의 사상을 단련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기본 조직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인민대중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 주시고 친 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분'을

		최근하게 높이어 이르는 말
특 재	주권자가 마음대로 정무를 처단함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소수 착취계급에 대한 독재인 동시에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이며 부르주아 독재는 광범한 피착취 근로대중에 대한 독재인 동시에 극소수 착취계급에 대한 민주주의이다.
☆일 군	삿을 받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혁명·건설을 위하여 일정한 부문에서 사업하는 사람
풍 자	무엇에 빗대어 재치 있게 경계하거나 비판함	미제국주의와 계급적 원수들의 반동적 본질과 려행을 폭로·규탄하는 데 이용하는 비웃음을 통한 비판

의하여 ‘개념+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이 표에서 보는 예는 ‘개념’에 대한 왜곡인 셈이다.

## 2.3. 특이 용어와 변화 과정

### 2.3.1. 북한의 특이 한자어

이에서는 북한에서만 쓰이는 특이한 한자어의 예를 일반 용어, 정치 용어, 경제 용어, 사회 용어, 문화 용어, 군사 용어, 대남 용어 등으로 나누어 몇 단어씩 소개하고 끝으로 우리가 쓰는 한자어의 일부가 의미는 같으면서 어떠한 다른 표현으로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일반 용어>

간고(艱苦)	강의(剛毅)	경석(硬席)
교시	미구(未久)하다	사기판(沙器板)
승벽(勝癖)	석수(石水)	선행관(先行觀)
세소상품(細小商品)	어간(於間)	업간체조(業間體操)
원주필(圓柱筆)	증시(證示)	집체작(集體作)

#### <정치 용어>

90호물자	사로청(社勞廳)	간부부
계급교양	3대혁명소조	우당(友黨)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혁명동력	특수압살대	덕성학습
교화소	호위총국	여맹
직맹(職盟)	영도예술	

〈경제 용어〉

연합기업소	속도전	협동농장
전격전	농민시장	섬털전
통신원	의무노동일	만가동(滿稼動)
노력공수(工數)	청산리정신	외화벌이 돌격대
수매상점	농촌기계화초병	여성 착암수중대

〈사회 용어〉

중앙공급대상	5호담당제	식량배급소
가정혁명화	양권	가구운반조
49호보양소	비밀통신	거주지제한
혈액수출	세대주회의	모범창조
외곽식주택	동의학	중앙복도식주택
실효전투	정양소(靜養所)	만경대 학원

〈문화 용어〉

군중무용	비밀작가	혁명가요
가무단	혁명연극	대작창작지도 그루빠
창작과제	작품기근	평양교예극장
문학예술의 당성		

〈군사 용어〉

초모(招募)사업	사관장	정치상학(上學)
갱도투입훈련	군인초대소	군위부대
소대선동원	노동적위대	정치지도원
교도대	작전요일	영예군인
만능병사훈련	주체여단	동지(同志)심판화

〈대남 용어〉

통일전선	결정적시기	공작선
조사부	혁명적대사변	40호실
연락부	지도핵심공작원	세멘트전술
만경봉호	갓끈전술	세균전연구소
9.25교시	3호청사	계관(桂冠)연락소
서방(西方)여인게릴라		

## 〈남북의 어휘 대비(한자어)〉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상이군인		영예군인		극장표		영화표지	
화장실		위생실		월동준비		과동준비	
산책길		유보도		군사계급		군사칭호	
양 해		료 해		자포자기		자기포기	
관상대		기상수문국		귀순자		의거자	
상 호		호 상		수업시간		상학시간	
수 행		성 수		출신수범		이신작척	
능 가		능 호		항 문		홍 문	
전시물		직관물		대중가요		군중가요	
양로원		양생원		서명·사인		수표(手票)	
보증하다		담보하다		원 수		원쑤	
대풍년		만풍년		결 과		후과	
예술공연		교예공연		국내외		해내외	
확성기		고성기		저 서		로작	
진열대		매대(賣臺)		민간인		사민(私民)	
반 찬		식 찬		하수관		오수관	
명 곡		절가(絶歌)		공무원		정무원	
등한시		차요시(次要視)		입구·어귀		초입(初入)	
경 시		홀 시		검문소		검열소	
현 병		경무원		벽 보		벽신문	

위의 예들은 북한에서만 쓰이는 특이한 한자어이며 이들의 비중만큼 국어순화는 뒷걸음질치는 것이 된다.<sup>5)</sup>

그러나 이들 이외에 지명이나 인명에도 김일성을 우상화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자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햇빛동’(함흥시 회상구역 치마 1동), ‘금빛동’(함흥시 용성구역 구룡 1동), ‘은빛동’(함흥시 구룡 2동) 등의 지명과 ‘솔, 별, 보람, 한길, 억척, 달메’ 등의 인명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유어 방식이 있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정치색 짙은 한자어로 된 고유명사가 많이 있다.

‘은덕군’(경흥군), ‘영광동’(개성시 태평동), ‘은정리’(서흥군 당천리), ‘광명리’(고산군 석왕사리), ‘경사리’(평성시 한왕리), ‘개선동’(평양시 모란봉구역 평화동) 등은 김일성에 대한 찬양과 관계가 있다.<sup>6)</sup>

5) 국어 순화를 단순히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

또 ‘김정숙군’(신파군), ‘김책시’(성진시), ‘김제원리’(재령군), ‘리수덕리’(평강군), ‘준혁리’(개천군) 등은 그들이 말하는 혁명 선렬들의 이름을 딴 것이다.<sup>7)</sup>

이러한 지명 외에 인명의 예로서 ‘은혜, 은덕, 영광, 충성, 충실, 혁신 전진, 선봉’ 등의 어린이 이름들을 들 수 있는데(박상훈 등. 1986 : 285) 이는 고유어로의 순화에 배치되더라도 혁명 사상을 드높인다는 목적에 더 충실하도록 지어진 이름이다.<sup>8)</sup>

### 2.3.2. 북한 한자어의 변화 과정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특이 한자어들을 변화가 없는 고정된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소개할 동의어, 이중체계어, 비규범어, 다듬은 말 등은 순서 그대로 고유어로의 순화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변화 과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는 다음 장에서 언급할 외래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동의어는 ‘한자 : 한자’인 것도 있고 ‘한자 : 고유어’인 것도 있으나 변화 과정으로 보면 가장 보수적이다. 이중체계어는 ‘한자 : 고유어’가 공식적으로 양자 모두 문화어로 인정받는 것이며 비규범어는 문화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규범어로 고쳐 써야 할 것들이다. 그런데 규범어로 고쳐진 것 중에도 한자어가 섞이는 수가 있다. 다듬은 말은 사전에 원말을 쓰지 못하도록 ‘×’를 해 놓았다. 그러므로 다듬은 말만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북한어의 동의어(한자)〉

한 자	고 유 어	한 자	고 유 어
태양력	양 력	모형비행기	모형기
반	절 반	반금속	준금속
포격	포사격	명란젓	명태알젓
반비례	역비례	반생	반생애

6) 박상훈, 리근영, 고신숙(1986),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276~307,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7) ‘김제원’은 1946년 토지 개혁 후 그 해 농사지은 것을 대부분 중앙에 헌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애국미 헌납 운동이 전개되어 그 돈으로 김일성 대학이 설립되었다 한다. (하동룡 1980, ‘防空’ 77, 77-78 참조.)

8) 저들의 제간지 ‘문화어학습’ 1979.1호에는 김일성이 동해 지구 수산 부문 사업을 현지 지도하면서 ‘신포시’의 ‘령무역’이 낡은 이름이라 하여 몹소 ‘퐁어역(豊魚驛)’이라는 이름으로 고치도록 일개워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약용식물	약식물	반세상	반세
마철	말굽쇠	산판	수판
모조	본따기	포화증기	포화수증기
살모사	독사	양주업	주조업
삼극진공관	진공관	양옥	양옥집
다층주택	다층살림집	삼림학	림학
폭발음	폭음	다층림	다층숲
삼복지경	삼복지간	풍력계	풍속계
과외시간	과외	풍채(風采)	풍신
관악기	관악	명수사	단위명사
광물질비료	무기질비료	야학교	야학당
철학자	철학자	야합수	자귀나무
하강선	내리막길	약수	약물
야간전투	야간전	마세(馬稅)	마삿
야전포	야포	부처	부부
부유하다	부요하다		

〈북한어의 이중체계의 말(한자 : 고유어)〉

한 자	고 유 어	한 자	고 유 어
연골	삭뼈	살층	벌레잠이
연상	벼루집	살층제	벌레잠이약
연안해	기슭바다	삼엽송	세잎소나무
마분	말뚱	권연	가치담배
연고	까담	농	고름
연맥	귀밑	농경기	농사철
포화	형걸신	농경지	부침당
어망	고기그물	마사	말우리
농피	고름덩이	풍속	바람속도
농독증	고름독증	면화	목화
어망사	그물실	농병	고름병
목관	나무관	양자	양아들
점토	진흙	만상	늦서리
양토	메흙	점토질	진흙질
만숙종	늦종	양피	양가죽
철선	쇠줄	모필	붓
망월	보름달	철쇄	쇠사슬
다식증	게걸증	연통	굴뚝

철퇴	쇠망치	연승	주낙
면모사	숨털실	채소전	남새밭
퇴비	두엄	목선	나무배
야경	밤경치	야생화초	들꽃

〈북한어의 비규범어와 규범어(한자어)〉

비규범어	규범어	비규범어	규범어
권련	권연	권련갑	권연갑
척(尺)	자	천궁(川芎)	궁궁이
천동	천둥	철릭(天翼)	천릭
하선	밀줄	야생초	야생플
야생사료	야생먹이	야생화	들꽃
마합조개	말조개	양성식물	양달식물
양철쪽	큰꽃철쪽	양아욱	꽃아욱
연시감	물령감	연초	담배
연초	담배	다과회	다과모임
다염기산	여러값산	다우지대	비많은지대
마편초	말초리플	만족(蠻族)	야만족

〈다듬은 말 정리(한자어)〉

원 말	다듬은 말	원 말	다듬은 말
유당	젖당	방광	오줌개
양계장	닭공장	탄력	빚힘
우회로	두름길	식당	밥공장
열균	균장그리죽이기	련시	이음시
폐활량	폐숨량	포총망	후리채
사질	모래질	결과지	열매가지
색맹	색못보기	계란	닭알
패도	겉그림	폐수	버릴물
상하방향	오르내리방향	상방향	올리방향
하강구배	내리물매	원시	덜리보기
반점	얼룩점	세탁실	빨래칸
탈의실	옷벗는칸	라선	타래선
개방형	열린형	군집	모임떼
후두음	목구멍소리	성대	목청

이장(移葬)	무덤 옮기기	슬개골	무릎뼈
방수	물막이	방풍	바람막이
홍토	벌건진흙	피뢰침	벼락촉
도열병	벼열병	양건법	별달림법
복회귀선	복쪽되돌이선	창자	벨

### 3. 북한 문화어의 외래어

#### 3.1. 외래어에 대한 대응 방식

북한에서는 ‘포르테, 필립, 텔레비죤, 아그레망, 프로톤, 로켓트, 프로그램’ 등의 어휘들은 세계 공통적 어휘로서 정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당위성을 민족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의 상호 관계의 합법칙성에 맞는 언어 발전 과정으로 파악하는 데서 찾고 있다.

김일성은 “...사실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에서 한자말과 일본말, 영어를 빼버리면 우리말은 ‘을’과 ‘를’과 같은 토만 남는 형편입니다.”라고 하여 심히 염려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박상훈 등, 1986: 8), “...물론 외래어를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외래어를 어느 정도 쓰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얼마간은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sup>9)</sup> 북쪽에서도 외래어를 무조건 배격하거나 적대시할 수는 없어서 합법칙성이란 용어까지를 동원하여 외래어의 수용을 합리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문화어의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의 특색은 유난히도 된소리 표기가 많다는 것으로서 이는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1) 중에서 러시아어의 표기를 명시한 제14항과 제19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제14항: 무성 파열음을 표시하는 자모 《π, τ, K》 뒤에 모음자가 와서, 그것들이 합쳐서 한음절을 이루는 경우에는 자기 《ㅍ, ㅌ, ㄱ》로 대조하되, 뒤의 모음과 한음절을 형성하여 자기 그의 첫소리가 되도록 표기한다.

9) 최완호, 문영호(1980), ‘조선어어휘론연구’ 23,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참조.

10) 북한에서는 1956년 이후에 외래어 표기에 대하여 부분적인 수정은 있어 왔지만 전면적인 수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부분적 수정의 한 단면은 북한 ‘문화어학습’ 1984.3호 25—26 참조.

제19항 : 무성 파열음이나 무성 마찰음 혹은 유성 마찰음을 표시하는 자모(u, ø, c, x, ʒ) 뒤에 모음자가 와서, 그것들이 합쳐서 한음절을 이루는 경우에는 자기 《ㅉ, ㅄ, ㅆ, ㅈ, ㅊ》로 대조하되, 뒤의 모음과 합쳐서 한음절을 형성하여, 자기 그의 첫소리가 되도록 표기한다.<sup>11)</sup>

이에 대하여 남한의 '외래어 표기법'(1986.1.7. 문교부 고시) 제 2장 표기 일람표 중의 '표 1'의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서는 모음 앞의 'p, t, k, f'는 각각 'ㅍ, ㅌ, ㅋ, ㅍ'으로 적도록 되어 있어 남과 북이 외래어 표기에 있어 'ㅍ, ㅌ, ㅋ'이 'ㅆ, ㅊ, ㄱ'으로 대응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국제 음성 기호라는 것은 결국 영어의 발음 기호를 거의 포함하고 있어 남과 북은 자기 영어와 러시아식 외래어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북한의 외래어에 대한 또 하나의 대응 방식은 일본식 한자어로 된 외래어에 대한 것인데 특히 벼 품종이나 과일 품종 등의 품종 이름을 많이 고쳐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한자어를 논하는 데에서 논할 수도 있었으나 일본식 외래어에 묶어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여기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몇 가지의 예를 들어 보겠다.

〈벼품종〉

- 륙우 132 호→강원 1 호
- 중생은방주→평남종
- 적표→평양 13 호
- 원야 2 호→함북 2 호

〈사과품종〉

- 옥→9 월, 국광→북청
- 홍옥→황주, 조생옥→8 월

〈콩품종〉

- 국상→감산 2 호
- 계명두→감산 3 호

그러나 아직도 원래 일본어이거나 일본어로 걸러진 외래어가 일본식 그대로 표기 되고 있다.

11) 위의 제14항과 제19항에서 "ㄱ"과 "ㅈ"에 "~로"라는 조사가 붙는 것은 이를 각각 '된기옥'이나 '쪄', '지웃'이나 '즈'로 읽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 〈일본식 외래어〉

고뿌, 간메라, 노가다, 다이야, 도마도, 리봉, 레루, 레시바, 마이싱, 삼팡, 자즈, 자크, 자끼, 만스, 딸라, 빠루, 빠찌, 판쑈, 쏘마도, 삐라, 펜찌, 뽕끼, 뽕뿌라.

여기에서 우리는 외래어 표기법 제14항과 제19항에서 본 바와 같이 러시아어나 러시아어의 외래어는 적극 수용하면서도 일본어나 일본식 외래어는 배격하려는 노력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 일본어의 특징을 가진 많은 외래어가 그들의 언어 생활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의 증거가 바로 1987년 2월에 가족과 함께 북한에서 월남한 김만철 씨의 기자 회견이었다. 씨는 이 기자 회견에서 “기름을 ‘만팡꼬’ 채웠다.”, “남은 옷을 갈라서 ‘우라까이’를 해서 어린애 옷을 지어 입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씨의 북쪽에서의 지위나 지식 정도를 감안한다면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일본어나 일본어식 표현은 좀 지나친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어문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호응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일제시대 그대로인 채 변화가 없었음을 느끼게 해 주었다. 북쪽의 사전에는 전차는 ‘땅크’, ‘물통’은 ‘물탱크’이며 ‘우라까이’라는 단어는 올림말로 실려 있지 않다.<sup>12)</sup>

이상에서는 북한어의 외래어 표기 문제와 일본식 외래어에 대한 저들의 대응 방식을 조감하였다. 아래에서는 외래어가 어떻게 정착되어 변화 과정을 겪고 있으며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끝으로 국명과 수도명의 외래어 표기를 대비시켜 보임으로써 남과 북의 외래어 표기의 일면을 더욱 실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 3.2. 외래어의 정착 양상과 변화 과정

#### 3.2.1. 외래어의 정착 양상

앞의 한자어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들어온 외래어가 그대로 정착되어 쓰이는 것을 정착 양상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의 파악을 위하여 필자는 북한 외래어 표기를 남한의 표기와 대비시켜 보이겠으며 또 동의어의 양상도 표로 보이려 한다. 자료는 남한의 ‘외래어 표기 용례집’ 일반 용어 편(1988. 8)과 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제 2판 1981. 12)이다.

12) 일본의 ‘外來語辭典’(角川書店, 1977. 1)에는 ‘땅꼬’가 아닌 ‘タレク’로 되어 있다.

## 〈북한의 외래어 표기(남북 표기 비교)〉

원 어	남한 표기	북한 표기
cup	컵	교뿌
candle	캔들	간데라
nut	너트	나트
napalm	네이팜	나팜
tomato	토마토	도마도
data	데이터	메타
radio(러)	라디오	라지오
montage(프)	몽타주	몬따쥬
roller	로올러	로라
romance	로맨스	로만스
robot	로봇	로보트
luman	루멘《물리》	류멘
lux	룩스《물리》	룩스
ribbon	리본	리봉
rail	레일	레루
race	레이스	레스
razer	레이저	레이자
manufatura(러)	매뉴팩처	마누팍투라
mycine	마이신	마이싱
manteau(프)	망토	만또
minus(러)	마이너스	미누스
missile	미사일	미싸일
balance	밸런스	바란스
baton	배턴	바통
bourgeois(프)	부르주아	부르쥬아
block	블록	블로크
sack	색(고무제품)	사크
shutter	셔터	샤타
shower	샤워	샤와
champagne	샴페인	삼팡
skirt	스커트	스카트
skate	스케이트	스케트
studio	스튜디오	스타지오
jazz	재즈	자즈
chuck	척(웃)	자크

jack	잭《기계》	자끼
dilemma	딜레마	지렌마
distoma	디스토마	지스토마
jelly	젤리	제리
cover	커버	카바
conveyer	컨베이어《기계》	콘베아
tank	탱크(물~)	탕크
terror	테러	테로
television	텔레비전	텔레비존
pulp	펄프	팔프
placard	플래카드	프랑카드
cabinet(러)	캐비닛(서류함)	까비네뜨
kayak(러)	카약《해양》	까야크
dance	댄스	단스
tractor(러)	트랙터	뜨락또르
pomade(프)	포마드	뽀마도

## 〈북한 외래어의 동의어〉

원 어	동 의 어	어
morning coat	모닝코트	연미복
veluto	베르베트	비로도
mycine	마이싱	스트렘토미징
concrete	콩크리트	세멘콩크리트
cable	케블	까벨
tenor	테노르《음악》	테너
fasio	파쇼	파시스트, 파시즘
percent	퍼센트	프로
phenol	페놀	석탄산
hemoglobin	헤모글로빈	혈색소
poplar	뽀뿌라	뽀뿌라나무
sine	싸인《수학》	찌누스
jodtincture	요드팅크《의약》	옥도정기

※ 사전에는 동의어 표시가 없지만 필자가 발견한 동의어를 더 열거할 수 있다.

가스테라(castella) : 카스테라

빠이프(pipe) : 파이프

테마(thema) : 제마

3.2.2. 외래어의 변화 과정

여기에서는 북한에 들어온 외래어가 고유어화를 향해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이중체계 외래어, 비규범어, 다듬은 말 정리의 순서로 소개가 될 터인데 이 순서는 바로 순화 차원의 서열이 되는 셈이다. 이중체계는 외래어와 우리말을 다같이 문화어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에 우리말에 고유어가 대부분이지만 한자어가 섞이는 수가 있다. 비규범어는 규범어로 고쳐 쓰도록 되어 있다. 규범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혼합되어 있어 순화 차원의 언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비규범 외래어가 쓰이지 않도록 규정된 점을 생각하여 이중체계어의 다음 자리에 두었다. 다듬은 말은 다듬기 전의 외래어 앞에 '×' 표를 하여 다듬은 말만을 쓰도록 강제된 것이다. 그러나 다듬은 말이 모두 우리 고유어일 수는 없고 한자어가 섞여 있다. 자료는 '현대조선말사전'이다.

<북한어의 이중체계 외래어(외래어 : 고유어)>

원 어	북한외래어	고 유 어
driver	도라이바	나사들개
dress	도레스	나리옷
drops	드롭프스	알사탕
drill	드릴	쇠송곳
demo	데모	시위
décadence	데까당	퇴폐주의
radiodrama	라지오드라마	방송극
racket	라켓	채
rope	로프	바줄
libretto	리브레토	극본, 대본
ring	링그	권투경기장
réalism	레알리즘	사실주의
mass	마쓰《미술》	덩어리
speaker	스피카	고성기
curve	카브	굽이길
case	케스	집, 갑, 함
pasta	파스타《의약》	된고약
pocket	포켓	호주머니
fry pan	후라이판	지짐판
heading	헤딩	머리받기
apron	에프론	앞치마

## 〈북한 외래어 비규범어와 규범어〉

원 어	비규범외래어	규범어
gasoline	가스링	휘발유
gothic 體	고지크체	천리마체
trans	도란스	변압기
diesel engine	디젤엔진	디젤기관
lupin	루핀	루펜
lux	룩스	룩스
lucksack	룩사크	배낭
relay	리레	이어달리기
linière	린넬	아마천
massgame	마스겜	집단체조
mosaic	모자이크	쭝무이그립
microphone	미크로폰	마이크
diphtheria	지프테리아	디프테리아
chance	찬스	기회
tulip	츄립	울금향
chain	체인	사슬
canaria	카나리아	금방울새
carnation	카네이션	향패랭이꽃
calpis	칼피스	고기순대
copy	코피	사본
compresser	콤프레샤	압축기
coup d'état	쿠데타	정변
clover	크로바	토끼풀
typewriter	타이프라이터	타자기
truck	트럭	짐자동차
tempo	템포	속도
procent	프로첸트	퍼센트
pistol	피스톨	권총
hyacinth	히야신스	복수선화
cosmopolitanism	코스모폴리찌즘	세계주의
banana	빠나나	바나나
permanent	빠마	파마
sausage	쏘세지	양말순대
sweater	세타	세타
opera	오페라	가극
winch	윈찌	권양기

〈다듬은 말 정리(외래어)〉

원 어	북한 외래어	다듬은 말
castella	가스테라	설기과자
dial	다이알	눈금판, 글자판
detail	디테일	예술적 세부
	넵뿌라	기름튀기
	라놀린	양털기름
Rahmen	라멘《건설》	틀
	로탐	채흔들이
roll	롤	굴대
lignin	리그닌《생물》	나무소
	리베(탱크의)	판사술
lima	리마	다듬송곳
ribet	리베트	말머리못
massage	마싸지	문지르기
montage	몬따주	판조립
melon	메론	향참외
variety	바라이테	노래와 춤 묶음
bite	바이트	쇠칼
	발라스트《해양》	잠김조절
beret	베레	둥글모자
scrubber	스크레빠《기계》	긁개칼, 긁개삽
tube	튜브	속고무
curtain	카텐	창가림
calpis	칼피스	신젓단물
caramel	카라멜	기름사탕
cold cream	콜드크림	기름크림
clutch	크라치	조종축잇개
crusher	크랏샤	바숨기계
cross bar	크로스바	가름대
climax	클라이막스	절정
terrace	트라스《건설》	살틀
thema	테마	주제
	파스	집게자
pipe	파이프	관
pipe organ	파이프 오르간	관풍금
forte(이)	포르테《음악》	크게

poster	포스터	선전화, 선동화
hook	호무트《건설》	가로철근
hoop	호크	결단추, 맛단추
fuse	후쁘《체육》	들립틀
headlight	휴즈《전기》	늑논쇠
catalogue	헤드라이트	앞등
committee	까다로그	상품목록
punch	꼬미씨야	위원회
ball	쁜찌	구멍 따개
siren	빨	공
Jam	싸이렌	고동
	잠	단졸임
	찌크	덩지기름
	찌호	직장
adagio(이)	아다지오《음악》	조용하고 느리게
arc	아크《물리》	전기불길
irony	아이로니《문예》	비양
icecream	아이스크림	얼음보숭이
icecake	아이스케키	얼음과자
off side.	음사이드《체육》	공격어긋
ink roller	잉크로라	잉크굴개
wire	와이야	쇠바줄
one piece	원피스	달린옷
knock	노크	손기척

### 3.3. 국명과 수도명

국명과 수도명의 표기가 남과 북이 다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상 외래어의 표기의 차이보다 더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특수 자료 취급 인가자가 북한의 신문, 잡지나 서적을 참고할 때에 적잖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원인이 국명, 수도명 등의 고유명사 표기의 차이에 있음을 필자도 경험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의 표를 보인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양주의 순서로 국명과 수도명을 나열하고 좌우로 각각 남한 표기와 북한 표기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자료는 남한의 '외래어 표기 용례집, 지명·인명편'(1986.5)과 북한의 '조선말소사전'(동경, 학우서방, 1986.5)를 이용하였다.<sup>13)</sup>

13) '현대조선말사전'(1981.12)에는 국명, 수도명에 대한 외래어 표기 부록이 없다.

〈아시아주(☆표는 차이가 있는 것)〉

남한 표기		북한 표기	
국명	수도명	국명	수도명
아프가니스탄	카불	아프가니스탄	카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아랍추장국	아부다비
예멘	사나	예멘	사나
☆남예멘	아덴	민주예멘	아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라크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
이란	테헤란	이란	테헤란
인도	뉴델리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따
☆카타르	도하	까따르	도하
☆캄푸치아	프놈펜	캄보자	프놈펜
쿠웨이트	쿠웨이트	쿠웨이트	쿠웨이트
☆키프로스	니코시아	끼쁘로스	니코시아
☆시리아	다마스쿠스	수리아	다마스끄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스리랑카	콜롬보	스리랑카	콜롬보
☆타이	방콕	타이	방코크
☆중국	북경 / 베이징	중국	베이징
☆터키	앙카라	토이기	앙까라
☆일본	도쿄 / 동경	일본	도쿄
☆네팔	카트만두	네팔	까뜨만두
바레인	마나마	바레인	마나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방글라데시	다카	방글라데슈	다카
버마	랑군	버마	랑군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부탄	팀부	부탄	팀푸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브루네이	반다르세리베가완
☆베트남	하노이	월남	하노이
☆몰디브	말레	말디브	말레
☆오만	무스카트	오만	마스까트
☆몽고	울란바토르	몽골	울란바따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꾸알라룸뿌르
요르단	암만	요르단	암만

라오스 ☆레바논	비엔티안 베이루트	라오스 레바논	비엔티안 바이루트
-------------	--------------	------------	--------------

## 〈아프리카주〉

남한 표기		북한 표기	
국명	수도명	국명	수도명
☆알제리	알제	알제리	알콰자이르
앙골라	루안다	앙골라	루안다
우간다	캄팔라	우간다	캄팔라
☆이집트	카이로	애급	까히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브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상부볼타/ 브르끼나파소	와가두구
가나	아크라	가나	아크라
지부티	지부티	지부티	지부티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베르데잡	쁘라야
가봉	리브르빌	가봉	리브르빌
☆카메룬	야운데	까메룬	야운데
☆감비아	반줄	감비아	반줄
☆기니	코나크리	기네	꼬나크리
☆기니비사우	비사우	기네비싸우	비싸우
☆케냐	나이로비	케니아	나이로비
☆코모로	모로니	꼬모르	모로니
☆콩고	브라자빌	콩고	브라자빌
자이르	킨샤사	자이르	킨샤사
☆상투메 프린시페	상투메	산토메 프린시페	산토메
잠비아	루사카	잠비아	루사카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시에라레온	프리타운
짐바브웨	하라레	짐바브웨	하라레
수단	하르툼	수단	하르툼
☆세이셸	빅토리아	세이셸	빅토리아
☆적도기니	말라보	적도기네	말라보
☆세네갈	다카르	세네갈	다카르
☆소말리아	모가디슈	소말리아	모가디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차드	엔자메나	차드	느자메나
중앙아프리카	방기	중앙아프리카	방기

☆튀니지	튀니스	튀니지	튀니스
☆토고	로메	또고	로메
☆나이지리아	라고스	나이제리아	라고스
☆나미비아	빈트후크	나미비아	윈드후크
니제르	니아메	니제르	니아메
☆스와질란드	움바바네	스위질랜드	움바바네
부룬디	부줌부라	부룬디	부줌부라
☆베냉	포르토노브	베닌	꼬또누/(쁘르또노브)
☆보츠와나	카보로네	보츠와나	가보로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말가슈	안파나나리부
☆말라위	릴롱게	말라위	리롱웨
말리	바마코	말리	바마코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	남아프리카	프레토리아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모리타니	누악쇼트	모리따니	누악쇼뜨
☆모잠비크	마푸토	모잠비끄	마뿌또
☆모로코	라바트	마로끄	라바트
☆리비아	트리폴리	리비아	타라볼스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리베리아	몬로비아
☆르완다	키갈리	르완다	끼갈리

〈유럽주〉

남한 표기		북한 표기	
국명	수도명	국명	수도명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이슬란드	레이카비크
아일랜드	더블린	아일랜드	더블린
알바니아	티라나	알바니아	티라나
☆안도라	안도라	안도라	안도라 라 벨라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로마
영국	런던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화란	암스메르담
☆오스트리아	빈	오지리	윈
☆그리스	아테네	희랍	대아테네
☆산마리노	산마리노	싼마리노	싼마리노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리에	스톡홀름

스위스	베른	스위스	베른
☆소련	모스크바	쑤련	모스크바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체스꼬슬로벤스꼬	쁘라하
☆덴마크	코펜하겐	단마르크	피뎨하븐
☆동독	동베를린	독일	베를린
☆서독	본	서부독일	본
노르웨이	오슬로	노르웨이	오슬로
☆바티칸	바티칸	바티까노	바티까노
☆헝가리	부다페스트	헝그리아	부다페슈트
핀란드	헬싱키	핀란드	헬싱키
☆에스파냐/스페인	마드리드	에스빠냐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	프랑스	빠리
☆불가리아	소피아	벌가리아	쏘피아
☆벨기에	브뤼셀	벨지꼬	브뤼셀
☆폴란드	바르샤바	뽄스까	와르샤와
☆포르투갈	리스본	뽄뚜갈	리스봉
☆몰타	발레타	말타	알레타
☆모나코	모나코	모나꼬	모나꼬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리히텐슈타인	파두츠	리히텐슈타인	바두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로므니아	부꾸레슈띠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

〈아메리카주〉

남한 표기		북한 표기	
국명	수도명	국명	수도명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띠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미국/미합중국	워싱턴	미국	워싱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우르과이	몬테비데오
☆에콰도르	키토	에파도르	끼토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쌔바도르	싼쌔바도르
☆가이아나	조지타운	가이아나	조지타운
☆캐나다	오타와	카나다	오타와
☆쿠바	아바나	꾸바	아바나
☆그레나다	세인트조지스	그레네이터	세인트조지스
☆과테말라	과테말라	과떼말라	과떼말라
☆코스타리카	산호세	꼬스따리카	싼호세

☆콜롬비아	보고타	콜롬비아	보고따
☆자마이카	킹스턴	겨메이커	킹스톤
☆칠레	산티아고	칠레	싼띠아고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도미니까	산또도민코
☆트리니다드 토바 고	포트오브 스페인	트리니다드 토바 고	포트오브 스페인
☆니카라과	마나과	니까라과	마나과
☆아이티	포트토프랭스	아이띠	쁘르토프랭스
☆파나마	파나마	빠나마	빠나마
☆파라과이	아순시온	빠라과이	아순씨온
☆바베이도스	브리지타운	바베이도즈	브리지타운
☆바하마	나소	바하마	나쑤
브라질	브라질리아	브라질	브라질리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까라카스
☆페루	리마	페루	리마
☆볼리비아	라파스	볼리비아	라빠스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온두라스	떼구시갈빠
☆멕시코	멕시코	메히꼬	메히꼬
☆앤티가바부다	세인트존스	안티구아바부다	쎄트존스
☆도미니카연방	로조	도미니카	로쎌아우
☆세인트빈센트 그 레나딘	킹스타운	쎄트빈쎄트 그레 너딘즈	킹스타운
수리남	파라마리보	수리남	파라마리보

〈대양주〉

남한 표기		북한 표기	
국명	수도명	국명	수도명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오스트랄리아	캔베라
☆키리바시	타라와	키리바티	타라와
☆솔로몬	호니아라	솔로몬제도	호니아라
투발루	푸나푸티	투발루	푸나푸티
통가	누쿠알로파	통가	누쿠알토파
나우루	나우루	나우루	나우루
☆서사모아	아피아	서부사모아	아피아
☆뉴질랜드	웰링턴	뉴질랜드	웰링톤
☆바누아투	빌라	바누아투	포트빌라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수바	파푸아뉴기니아	포트모레스비 수바
피지		피지	

## 4. 결 어

이상에서 필자는 북한 문화어의 한자어와 외래어에 대하여 대체적인 조감을 한 셈이다. 북한에서는 말다듬기 사업을 벌여 한자어에 대하여 고유어로의 순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김일성에 대한 찬양이나 체제 옹호, 사상 무장 등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한자어가 오히려 말다듬기의 성과를 훨씬 능가하는 해독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래어에 대하여는 남쪽이 영어 발음에 준하여 표기 기준을 정한 데 대하여 북한은 러시아어의 발음에 기초하여 표기법을 정하였기 때문에 일반 용어나 지명, 국명, 수도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한자어나 외래어를 우리의 고유어로 고치는 노력을 남한이나 북한이나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으나 다듬어진 고유어 중에는 남북의 어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이것이 장차의 언어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민족어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정치적, 사상적 불순 요소를 어떻게 청산하고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

## 참 고 문 헌

- 金敏洙(1985), 北韓의 國語研究, 高麗大學校 出版部.  
 국어연구소(1985), 漢字·外來語 使用實態 調査 I.  
 \_\_\_\_\_(1986),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  
 \_\_\_\_\_(1987), 漢字·外來語 使用實態 調査 II.  
 \_\_\_\_\_(1988), 외래어 표기 용례집(일반용어).  
 하동룡, (1980), 防空 77.  
 김영길 외(1986), 조선말소사전, 동경, 학우서방.  
 박상훈, 리근영, 고신숙(1975),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리상벽(1986), 조선말화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언어학연구소(1971), 조선말규범집해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정순기 외(1981),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최완호, 문영호(1980), 조선어어휘론연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문화어학습 1호(1979),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문화어학습 3호(1984),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あらかわ そおでえ(1977), 外來語辭典, 東京, 角川書店.